



4월12일
월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농축산식품국	과장	손명도	담당	김기평	☎	286-6220
----	--------	----	-----	----	-----	---	----------

김영록 지사,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서 농협 역할 강조

- 농협은 전남 농업의 영원한 동반자!, 협력사업 확대 당부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함평군 나산면 소재 나비골농협 육묘장에서 개최된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주관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동시 발대식에 참석해 농협과 전남도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을 비롯해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농협관계자와 이개호 국회의원, 이상익 함평군수 그리고 함평군 관내 농협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전국동시 발대식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농업인들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로 전국 1,118개 회원농협을 아우르는 행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달라지고, 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전략산업이자 미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표 농도인 전남에서 올해 행사가 개최되어 그 의미가 크다.

이성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원으로 농촌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농협임직원들의 농촌 일손돕기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도 환영사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을 늘려 나가면서 미래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라남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협 중앙회가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대당 2천 6백만 원 상당의 농기계 1,118대를 회원농협당 1대씩 지원하는 농기계 전달식도 진행됐다.